



5월20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실국	농업정책과	과장	손명도	팀장	차은령	☎	286-6240
----	-------	----	-----	----	-----	---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이달 5.28.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 빈집개조비용·조립주택 건축비 등 최대 1,500만원 지원 -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개선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주거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마감일인 5월 28일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이며, 농촌지역에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한 경우가 해당된다.

주거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전체 사업 지원 규모는 총 72개소이며,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시 군별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 농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운영계획서 작성이 핵심 포인트이다. 전라남도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주방·욕실·화장실 등 보유 여부, 도배·장판 설치 여부, 냉온수 및 환기시설, 소방·보안시설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번 사업을 통해 개조 또는 설치한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은 7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빈집이나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의무사항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한 곳당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빈집 및 부지 확보, 빈집 개보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소방·**보안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전남도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을 임차해서 개조한 경우에는 개소당 1,500만원 **이내**에서 전액 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소유의 빈집을 개조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30%를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은 금년초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강화하면서 숙소 개선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도입된 것으로 농촌지역의 고용여건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느때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필요한 농가가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